

25장 (2) 진설병상과 등대

성소 안에는 분향단, 진설병상, 등잔대가 있었는데 25장에서는 진설병상과 등잔대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1. 진설병상과 기구들 (25:23-30)

성소에는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이 있는데 25장에서는 진설병상과 등대에 관한 규례를 주시고, 분향단에 관한 것은 30장에서 말씀하신다.

진설병상은 언약궤처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으며 순금으로 테두리를 하였다. 고리 넷을 두어서 채로 운반하도록 한 것도 언약궤와 동일하다. 길이가 2규빗(90cm), 너비가 1규빗(45cm), 높이가 1.5규빗(68cm)이 되도록 하였다. 언약궤와 높이는 같지만 폭과 너비는 0.5규빗씩 작게 만들었다.



대접, 작은 접시(개역한글에서는 ‘순가락’으로 번역되었다.), 병, 잔을 순금으로 만들어서 진설병상 위에 두었다. 대접 위에는 진설병을 두었고, 작은 접시에는 아마 향을 두었을 것이다(참조 레 24:7). 대접이 열두 개라면 진설병을 각각 대접에 두는 방식으로 쌓았을 것이다. 병과 잔은 붓는 제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다.

2. 등잔대와 기구들 (25:31-40)

진설병상의 맞은편에는 등대가 놓였다. 등대는 금을 쳐서 정교하게 만들고 모두 한 덩어리로 연결하여 만들었다.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고 살구꽃 형상과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였다. 가지 여섯과 중앙 줄기의 위에는 등잔을 두었는데, 모두 일곱 개의 등잔을 두었다.



그리고 불집개와 불뚝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되, 한 달란트(34킬로그램)를 사용하여 만들도록 하였다. 등대도 하나님께서 보인 식양대로 만들었다.

묵상과 실천:

진설병과 등잔대의 의미

1. 진설병의 의미

진설병(陳設餅)은 ‘배열해 놓은 떡’이라는 의미인데, 제사 음식을 배열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다. 원문으로는 ‘(하나님) 얼굴 앞의 떡’이라는 뜻이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진설병 떡을 먹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먹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은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모습이다(출 24:9-1). 달리 표현하면 이 떡은 하나님을 위해 배열해 놓은 떡이라기 보다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생명을 얻는 떡이다. 이교도의 제사상에는 귀신이 먹는 것을 상징하는 순가락이 있으나 진설병상에는 순가락이 없다.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유향을 담는 작은 접시를 ‘순가락’으로 번역하였다.)

진설병의 의미는 성소의 배열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교도의 신전에서는 진설하는 상이 제단의 중앙에 있으나 이스라엘 성소에서는 진설병이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있고, 성소의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을 향해 있었으며 등잔의 맞은편에 있었다. 성소의 중앙에는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분향단이 있었다. 그리고 성소의 등대는 진설병상을 비추고 있었다. 이러한 배치는 하나님께서 그 떡을 먹는

다는 사실과 무관함을 보여 준다. 그 떡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으로서(레 24:8)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거룩한 곳에서 먹었다(레 24:9). 장로들이 하나님의 발 앞에서 먹었던 사실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진설병을 먹는다는 사실은 비슷한 면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탁에서 나누는 교제를 나타낸다.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전히 무교병이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무교병은 딱딱하다고 싫어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것에는 신령한 의미가 있다. 생활의 필요뿐 아니라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2. 등잔대의 의미

등잔대에는 일곱 개의 등잔을 두게 하였다. 완전수를 상징하는 일곱 등장으로써 하나님의 비추심이 완전함을 표시한다. 여호와께서는 빛으로서 자기 백성을 비추시고 인도해 주신다.

구약의 성소에서는 등잔대의 빛이 진설병을 향한다(25:37).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먹이신다는 사실을 알리신다. 하늘 성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일용할 양식도 채워 주신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에 싸여서 불평하는 것은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된다.

여호와께서는 앞에 있는 진설병만 보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신다. 보좌 앞의 일곱 영으로 그 일을 하신다(속 4:10; 계 4:4; 5:6).

예수님께서서는 참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빛을 비추시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그분의 백성도 거룩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게 하셨고,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빛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게 인도한다.

25장 (2) 익힘 문제

1. 1)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두는 상은 무엇으로 만들고 무엇으로 싸라고 하셨습니까? (23, 30, 31절)

2) 진설병을 두는 상 위에 있는 기구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29절)

2. 성소 안에 있는 등대에 관한 규례입니다.

1) 무엇으로 만드라고 하셨습니까? (31절)

2) 어떤 꽃의 형상으로 등대의 잔과 꽃받침과 꽃을 만드라고 하셨습니까? (33, 34절)

3) 등잔은 몇 개 두도록 하셨습니까? (37절)